

정부 ‘양보’에도 강경한 의료계 병원 찾은 시민 “의사도 양보를”

“밀어붙이는 쪽 이기는 건 아냐” 25일엔 의대 교수 사직 본격화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며 내년 3월부터 늘어날 예정이던 의대 신입생 수가 많게는 1000명까지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며 정부 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파행이 앞으로 단시일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뉴시스가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의사들이 응하지 않아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것 같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말 오전부터 암 환자인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이모(43)씨는 “정

부가 교육계가 요청한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을 수용했지만 의사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같다”며 “지난 몇 년을 보더라도 의사가 꼬리 내린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만난 주모(42)씨도 “지인의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지만 의사가 없다고 수술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의사가 맞나 싶었다”며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가 언제 통증을 호소할지 모르느 상황에서 응급실 진료에도 큰 차질이 생길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오후에도 병원은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로 붐볐다. 이들은 의료계도 강경한 태도만 고수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양보해 의료 공백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용인에서 왔다는 한모(54)씨는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가 이제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의사는 왜 그렇게 강하게만 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싸울 수는 있지만 양보를 하나도

안 하고 밀어붙이는 쪽이 이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의사가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암 투병 중인 할머니의 병문안을 왔다는 최모(29)씨도 “처음에는 정부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며 “의사들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카드를 아예 꺼내지도 않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최씨는 “어릴 때 마트에서 사고 싶은 게 있다고 누워서 떼를 써도 어머니가 사주지 않았다”며 “의사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약간 물러서기도 하며 주장할 건 또 주장하고 해야 하는데 우기기만 하는 모습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수 사직과 외래·입원환자 진료 재조정 등 25일부터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수권기자



말라가는 전남 광양시 다압면 한 두꺼비 산란 습지. (사진=전남녹색연합 제공)

메말라가는 섬진강 두꺼비 산란지...복원 방안 없나

개발 행위 등으로 메말라가는 전남 광양 섬진강 지역 두꺼비 산란지가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전남녹색연합에 따르면 광양시 다압면사무소 인근 임야에 715㎡(217평) 규모의 두꺼비 산란 습지가 형성돼 있다.

2년 전 이 인근에 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우수로가 만들어졌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바뀌면서 습지는 급속도로 메마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3월 산란지

장강(蟾津江)은 ‘두꺼비 섬’자를 따와 지어졌다. 광양 진상면, 다압면도 두꺼비와 연관된 지명으로 섬진강 일대는 두꺼비와의 인연이 깊다.

광양시 다압면~진월면까지 이어지는 섬진강 강줄기에는 두꺼비 산란지 10여 곳이 있었지만 개발 행위 등으로 점차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환경단체는 설명했다.

사라지는 산란·서식지에 대해 보호·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회관 조성 이후 물길 바뀌어...우수로에 산란 사유지인 습지 메워져 올해 두꺼비떼 관찰되지 않아

를 찾는 두꺼비들은 메마른 습지 대신 우수관로에 알을 낳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수관로의 경우 폭이 깊고 수량이 일정치 않아 알이 메마르거나 새끼가 우수로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는 이 산란지에 알을 낳으러 오는 두꺼비떼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사유지를 매입해 복원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을 가로지르는 섬

전남녹색연합 관계자는 “자전거길 도로 개발,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두꺼비와 연이 깊은 오래된 서식지들이 변형·파괴되고 있다”며 “두꺼비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회귀해 알을 낳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서식지 복원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계획한 복원 사업은 없다”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인이 산란지를 메우거나 개발해도 제지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WE THE ROSE

The R·E·D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2024. 5.17^일 - 26^일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봄철 벌목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 “안전수칙 꼭 지켜야”

최근 5년 간 벌목 재해 사망 34건 전남서 이달에만 2명 사고로 숨져

봄철 벌목 작업이 늘면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노동 당국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 발생한 벌목업 관련 업종의 재해 사망사고는 34건이다.

그 중에서도 원목을 취급하다 나무에 깔리거나 뒤집혀 발생한 사고가 64.7%에 달해 작업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인 사고 발생 형태를 보면 깔림·뒤집힘 22건, 떨어짐 6건, 물체에 맞음 3건, 부딪힘 1건, 절단·베임 1건, 기타 1건 순이다.

전남에서는 2021년 2월 15일 강진군 한 작업 현장에서 벌목을 하다 쪼인 전선을 복구하기 위해 전신주에 오르면 작업자가 감전돼 1명이 숨졌다.

2023년 5월 8일 장성군에서도 베려던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가 쓰러지면서 작업자를 덮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계톱 등 장비를 사용하다가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베이는 사고를 비롯해 최근 3년 간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는 이달에만 벌목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10분께 고흥군 두원면 한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작업자 A(63)씨가 앞서 자른 소나무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민간업체 소속인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벌목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장흥군 관산읍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군청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B(64)씨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이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벌목 작업은 기계톱 등 위험한 장비를 사용할 뿐더러 가파른 산비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가 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벤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을 정하고 미리 적절한 대피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벌목 전 넝쿨과 잔가지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벌목 대상 나무를 중심으로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안전 거리를 유지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거나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작업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모와 안전화, 무릎보호대, 방진장갑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벌목작업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슬비 기자